

참고자료:

- [1] “Chinese Cellphone Makers Garb Half”, Reuters, 2003. 6. 10
- [2] Gartner Dataquest, Chinese Cellular Phone Vendors Are Catching Up, 2003. 6.
- [3] _____, China Mobile Terminal Forecast: 1997 to 2006, 2003. 3.
- [4] _____, Mobile Terminals: Worldwide; 2001~2006, 2003. 1.
- [5] “이동통신 중국 휴대전화 제조업체들 세계시장 빠르게 침투”, Wise On Net, 2003. 1. 6
- [6] “중국, 세계 최대 휴대 전화 생산 국가로 부상”, Wise On Net, 2003. 1. 14

SCO v. IBM 리눅스 관련 분쟁의 의미와 대책

미래한국연구실 연구원 이철남
(T. 570-4313, seabird33@kisdi.re.kr)

1. 사건의 경과와 전망

지난 3월 유닉스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SCO는 IBM이 유닉스 운영체제와 관련된 업무상 기밀을 노출시켜 리눅스 기능을 개선시키는데 사용함으로써 자사와 맺은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1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이후 전세계 1,500개 대기업에 리눅스를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그 이후 SCO그룹의 전신인 칼데라에 유닉스 관련 권리를 이전했었던 노벨이 SCO그룹의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었지만 SCO가 수정계약서의 내용을 제시하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SCO로부터 유닉스관련 라이선스를 이전 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SCO에 힘을 실어주었다.

IBM으로부터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한 SCO는 지난 6월 16일, IBM의 AIX 판매에 대한 라이선스를 철회하는 등 IBM의 유닉스 비즈니스에 대한 금지 청구(SCO에 따르면 AIX 라이선스 철회는 IBM뿐 아니라 IBM 고객도 더 이상 AIX를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함)를 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액을 30억 달러로 확대(상세 내역은 IBM이 자사와의 계약 위반에 대한 10억 달러, 지난 1999년 IBM이 인수한 시퀀트와 맺은 유닉스 계약 위반 혐의에 대한 10억 달러, 불공정 경쟁혐의에 대한 10억 달러이며, 영업비밀 남용과 벌금명목으로 배상액을 추가로 요구)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 더 이상 유지가 어려운 특정 기업의 마지막 '광대짓'에 불가한 것으로 평가조차 필요 없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리눅스의 종말'을 예고하는 극단적인 견해도 있다. 실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법원에서 SCO의 주장을 이유 없는 것으로 기각하는 경우가 가장 단순하게 정리되는 경우일 것이나, 만약 SCO가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고 법원이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IBM은 자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 등 막강한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SCO에 대한 역공을 펼치면서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아예 SCO를 인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대응을 취할 것인지는 리눅스에 대한 IBM의 향후 전략과 크게 연계될 것이다.

2.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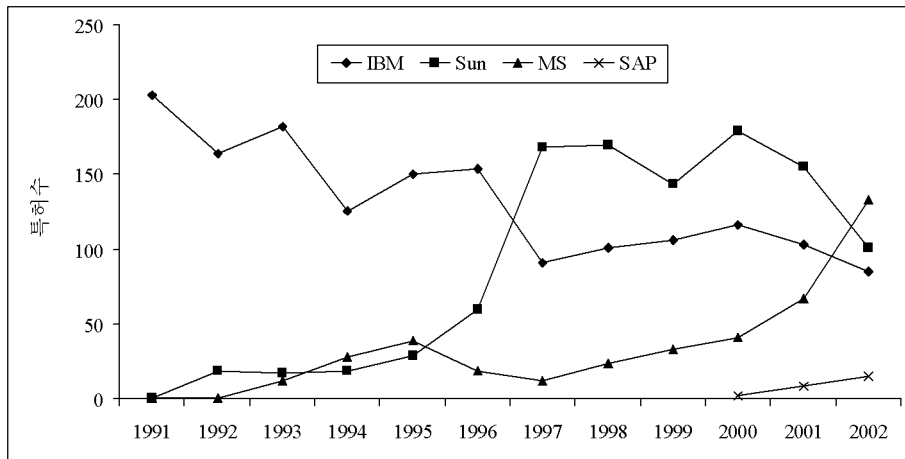
소송의 향후 결과뿐만 아니라 SCO가 리눅스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 그 자체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리눅스가 기업 소프트웨어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경쟁제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IT 관리자들은 보통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리눅스의 도입을 재검토할 여지가 크다. 실제 가트너 분석가들이 기업들에게 특히 중요한 시스템에 리눅스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 재고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는 기업 시장에서 리눅스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업체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다.

반면 혜택을 받는 업체들도 있다. 무엇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반사이익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윈도우 시스템의 가장 유력한 경쟁상대로 여겨지는 리눅스의 급격한 확산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것은 MS에게 좋은 기회이다. 실제 MS가 SCO로부터 유닉스관련 라이선스를 도입함으로써 SCO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이를 잘 반영한 것이다. 유닉스 서버 시장에서 IBM과 경쟁하고 있는 Sun도 미미하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Sun은 이미 SCO와 유닉스 라이선스와 관련된 권리를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자사의 유닉스 제품인 솔라리스는 아무런 법적 문제점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광고를 통해 IBM 유닉스 운영체제인 AIX 사용기업에게 Sun 플랫폼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 상황은 아직까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듯 하다. 리눅스 관련 시장이 아직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리눅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예정인 업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리눅스, 나아가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짚어보고 이와 관련된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특히 임베디드 리눅스 분야의 경우 제품가격이나 시장규모 등으로 볼 때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이 경우 자사의 객관적인 상황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예컨대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이, 90년대 초반 MS

는 특허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관련 특허를 부여하는데 상당히 비관적이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특허권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보호에 적극적이다.

(그림) 주요 S/W업체의 유럽특허청 특허 등록 추이



자료: ffii.org

참고자료:

- [1] David Becker, "Why SCO decided to take IBM to court", CNET 2003. 6. 16
- [2] Eric Raymond, "OSI Position Paper on the SCO v. IBM Complaint", at <http://www.opensource.org/sco-vs-ibm.html>
- [3] Eben Moglen, "FSF Statement on SCO v. IBM", at <http://www.fsf.org/philosophy/sco-statementn.html>

유무선 연동 게임 서비스 동향

통신방송연구실 연구원 진재영
(T. 570-4037, being44@kisdire.kr)

현재 시장에서는 온라인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업체를 중심으로 유선 인터넷과 이동통신사